

“나이롱환자 만드는 경상환자 보상, 치료 중심으로 바꿔야”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비중 85% 치료비 우선보상으로 합의 유도 합의 기간 짧지만 외래진료 길어 보편·타당 치료중심으로 합의를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의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편타당한 치료 및 보상기준이 부재해 ‘나이롱환자(가짜환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인 경상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85%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보험제도의 대부분은 중상해환자를 기준으로 마련돼 경상환자에겐 적절하지 못하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원화와 입원료 체감률 미적용 등은 골절 절단 등 중상해환자의 치료에는 적절하나 편타성 상해



햇 지피티가 생성한 경상환자 증가 이미지.

등이 대부분인 경상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면서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기준이나 보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나이롱환자 문제

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보상 및 치료기준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의 차이는 한방진료와 합의 시점이다. 일본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치료가 시작된 후 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 치료를 종

료하고 합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합의한다.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의 합계에 과실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가 합의하면 사고책임이 종료된다.

문제는 경상환자가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보험금 대비 위자료와 휴업손해 비중보다 더 높았고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의일수는 일본에 비해 짧지만 외래진료일수는 더 길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향후치료비를 보상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 사고 조사가 이뤄져 합의일수는 더 길어져서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료기준의 부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들은 일본 계약자에 비해 2.5배 높은 대인배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일본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금액은 우리나라 합의금의 31%에 불과하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크고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합의 관행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트럼프 효과’에 날개 단 가상자산… 韓, 정책 변화 시동

가상자산위, 법인계좌 허용 검토 현물ETF 거래 논의도 속도낼 듯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나아가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이뤄졌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개최 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앞줄 가운데)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출범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고,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에 대한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 연결된 실명 계

좌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에는 계좌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고 법인 계정을 실명 인증 계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인 계좌 발급 허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논의의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대하는 기초가 바뀔 것을 두고 트럼프 후보의 재선 성공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

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친(親)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 바이든 정부와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금융 규제완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개선, 미 국제 발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유동성 증가 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친(親)가상자산시장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계좌와 더불어 가상자산 현물(ETF)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글로벌 국가들의 비해 매년 후발주자로 시작했을 뿐더러 미국 정책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가 본격 시작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는 알트코인 현물 ETF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현물 ETF 거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안양도 국평 15억 시대… ‘아크로 베스티뉴’ 공급

18일 특별공급, 19일 1순위 청약 전용 84㎡ 최고가 15억7440만원

경기도 안양에서 ‘국민평형’인 전용 면적 84㎡의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어 서면서 청약 흥행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후분양에 역세권,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됐지만 안양에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아크로 베스티뉴는 안양 호계동천 재개발사업이다. 지상 37층, 10개 동으

로 총 101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391가구다. 면적별로는 ▲39㎡ 10가구 ▲59㎡A 286가구 ▲59㎡ B 33가구 ▲74㎡B 21가구 ▲84㎡ 41가구다.

단지는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을 지하로 연결한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평촌학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이와 함께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가 경기권 최초로 적용됐다.

분양가는 예상보다 높다는 분위기가 있다. 전용 84㎡가 최고가 기준 15억7440만원이다. 59㎡도 10억8950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섰고, 74㎡는 14억290만원이다.

아크로 베스티뉴가 들어서는 호계동에서는 신축도 84㎡가 최고 11억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입주한 ‘평촌트리비아’가 올해 8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2023년 입주한 ‘평촌센텀퍼스트’가 11억3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2021년 입주한 ‘평촌아반피스트’는 최고가가 10억5000만원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프레스티어자이’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6275만원으로 과천 역대 최고가였지만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며 “아크로 베스티뉴는 빠른 입주도 가능해 상급지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얼죽신’ 열풍에 신축 매매가 격차 심화

5년이내 vs 5년초과 매매가 1.31배 성동구 3.19배, 용산구 1.83배 차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선호)’이란 신조어와 함께 5년 이내와 5년 초과 아파트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 결과 이달 전국 5년내 아파트의 3.3㎡(평)당 매매가격은 2145만원 수준으로 5년초과 아파트값(1635만원)과 비교해 1.31배를 나타냈다.

이는 집값 고점기로 꼽히는 2021년 1.27배와 비교해 가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서울은 5년내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5559만원 수준으로 5년초과 아파트(3960만원)와 비교해 1.40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 영향으로 입주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값이 높은 편이었다. 도심 재건축완료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새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개별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3.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성수동 내 아크로서울포레스트(2020년 11월 입주)가 숲세권과 한강뷰로 고가를 형성하며 5년초과 아파트와 가격차가 컸다.

다음은 용산구로 1.83배 차이다. 한남동의 고가주택으로 꼽히는 나인원한남(2019년 11월 입주), 용산센텀파크(2020년 8월 입주) 등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전지원 기자 jiw13@